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한 가위를 맞아 즐겁고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사람,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공동체학교 전체학부모교육이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예배 실행위원회 임시회의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디아코니아사랑방 ( 한가위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한호남 집사 ( 감사 )

신협(한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37 호

2024년 9월 15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추석 음식들을 생각해보며

얼마 전에 멧쟁이 학생들과 함께 고추를 한아름 땀습니다. 고춧잎을 헤치며 잘 익은 것만을 따는데, 고추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수확을 하는 식물이다보니, 아직은 새파란 녀석도 있고, 썩어서 문드러진 것도 함께 있었습니다. 작업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따는 역할을 맡은 누군가가 잘 익은 것만 골라서 바닥에 떨어뜨려놓으면, 옮기는 역할을 맡은 학생이 주워서 통에 담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미줄을 헤쳐가며 작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세찬 소나기가 쏟아져 노작은 아쉬움을 담고서 금세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가위에 대해 배우며 느낀 것입니다. 이 수확은 바야흐로 추석의 전조였구나 하고.

추석, 한가위라고도 부르는 이 명절은 뭐니뭐니해도 다채로운 음식이 핵심일 것입니다. 달맞이나 강강술래, 막히는 고속도로 길, 덕담과 잔소리, 추석특선영화 등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맛있게 차려진 식사시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인 송편, 토란국, 갈비찜, 산적꼬치, 동그랑땡을 비롯한 온갖 전, 제사상 용으로 꼭지를 도려낸 배와 사과, 잡채, 잡채에 들어갔는데도 또 따로 나오는 고사리와 온갖 나물, 소고기무국, 후식으로 나오는 식혜, 꽃감, 선물용으로 오고갔던 약과까지... 각 가정마다 경험한 것들은 다르겠지만, 이 때에 특별히 자주 다뤄지는 음식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다채롭습니다.

엄밀히 말해 추석은 본격적인 추수를 하기 전에 풍성한 열매와 수확물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뭄, 장마, 태풍, 병충해, 전염병 등을 헤쳐나오며 일궈낸 것들을 온전히 만끽하기 이전에, 온 가족이 모여 기쁘게 즐기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는 송편을 만들 때에도 덜 익은 벼에서 나오는 쌀로 만들었다고도 하니, 이토록 풍성한 식탁을 누리게 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나 맛있고, 또 손도 많이 가고, 기름지기도한 이 음식들은, 결국에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 안에서 피어난 열매입니다. 대표적으로 밥과 송편을 만드는데 쓰이는 쌀은, 따로 모판에 볏씨를 심어

키워서 논으로 옮겨 기르는 식물입니다. 모내기를 할 때부터 잡초를 제거하는 김매기, 그리고 완전히 수확하는 가을걷이같이 모두 사람이 한 땀 한 땀 관리해줘야 합니다. 벼는 그 본성대로 자라는 것 뿐이지만, 잘 자랄 수 있도록 손길을 더해주지 않으면, 자신보다 빠르고 강하게 커져버리는 잡초들에게 밀려서 쉽게 죽어버립니다.

김치를 담그는데 주 재료인 배추도 그렇습니다. 농약 없이는 온갖 벌레가 꼬여들며, 물이 잘 공급되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또한 필수로 들어가는 고춧가루 또한 가루가 되기까지 긴 세월을 거쳐야 합니다. 도중에 전염병에 걸려 썩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개체마다 수확하는 날짜들도 천차만별입니다. 김장할 때의 소금과 액젓도 첨단기술과 노력들이 가미된 결과물들입니다.

다른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다채롭고 먹음직해 보이는 이 결과물들은, 누군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재료를 옮기는 사람, 중간 거래를 맡은 사람, 직접 기르거나 채취하는 사람 모두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수고들을 생각하다보면, 마찬가지로 좌충우돌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야를 깨닫게 됩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음식이 없듯이, 주님의 손길이 닿은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해설해주시길,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맺는 사람들이라고도 하셨습니다(누가복음 8:15). 추석이 다가온 지금, 황금처럼 노랗게 익어가는 벼들은 무릎까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연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겸손한 열매, 주님께 칭찬받는 열매, 주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열매, 적절한 시기에 잘 맺어지는 열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친지들과 행복하게 보내며, 서로에게도 좋은 열매가 되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만큼 올 수 있었다며 감사한다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망들을 담아, 사랑방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 한주간의 말씀

“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  
<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

## < 수요일기도회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410 414 / 447

기도 :

성경 : 예레미야서 45장

제목 : 바룩의 탄식과 하나님의 보호 약속

1. 하나님께서는 바룩이 한 탄식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

해석: 하나님께서는 사정을 아시는 분이시다. 고통,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적용: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 탄식을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혼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자.

2. 자신이 살기 위한 큰 일, 중대한 일을 찾지 말아라.

해석: 사람은 큰 일, 중요한 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한다.

적용: 큰 일 일수록 때 하나님께 구하자.

3.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내릴 때,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주겠다.

해석: 목숨을 잃지 않으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적용: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아야 한다. 끝까지 믿고 견딜 수 있다.

## 텃밭 일기

서울에 살면서 농사라는 건 모르고 살다가 무림리로 이사 오면서 텃밭을 하기 시작했다. 첫 농사는 주인집에서 꽤 넓은 땅을 빌려주어서 고구마를 심었는데, 갈아논은 밭에 봄에 가서 심고 가을에 가서 거두기만 했으니 효율적인(?) 농사였다. 그래서 그 기억 때문인지 지금도 누가 빈 땅에 뭘 심을까 고민하면 고구마 심기를 추천한다. 아이들 어렸을 때라 친정 대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했는데 꽤 많이 수확했다. 그 후 3, 4년은 텃밭이 없어 농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작은 텃밭이 생겨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 10년은 훌쩍 넘게 텃밭 농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완두콩과 강낭콩, 토란 모종을 제일 먼저 만들고, 밭을 고르고, 풀이 무서워서 고랑에 제초 매트를 깔았다. 제일 먼저 상추 모종을 심고, 겨우내 보관해서 싹이 난 감자도 심고, 토마토, 고추, 가지, 오이, 참외, 수박, 비트, 땅콩, 케일, 배추, 생강 등을 좁은 땅에 골고루 많이도 심었다. 상추는 잘 자라 넘치고 케일은 벌레 밥이 되고 토마토랑 고추는 그럭저럭 먹을 만큼 수확했으며, 수박은 거름이 부족한지 한두 개 예쁘게 달렸지만 보는 뿌듯함만 주고 맛은 맹탕이었다. 배추는 예쁘게 자라다 장마에 녹아버렸다. 속이 차지 않아도 장마 전에 미리 수확해야 했는데 주말에만 들여다보니 때를 놓쳐 버렸다. 그래도 버릴까 하다 심은 감자에서 여러 개 감자가 달릴 때, 2, 3개 따서 먹은 참외가 맛있을 때 행복했다.

텃밭이 좁다 보니 간격을 촘촘하게 하고 욕심껏 심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텃밭은 정글이 되어간다. 토마토 결순을 제거하고 익은 토마토를 따고 지저분한 잎을 정리하고 나면 내 마음도 정리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 허리를 굽힌 채 텃밭을 정리하는 동안 머릿속을 채웠던 잡념은 사라지고 수확하는 신기함과 고마운 마음이 든다.

작은 텃밭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과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잠시라도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비워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한다.

따뜻한사랑방 임미숙 집사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요한복음 7 : 37-38  
28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고린도후서 5 : 17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591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신명기 16 : 13-17 설교자  
412 디아코니아사랑방  
“ 추석, 감사로 지내십시오 ” 정재훈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587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38(1)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나송주 이윤희 / 봉헌위원 : 정영옥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만물을 기르시는 하나님

공동기도문

오곡백과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좋은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 추석, 감사로 지내십시오

이스라엘의 명절.      한국에는 추석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살피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웃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임시거처에서 지내면서 자신들의 뿌리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의 의미.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모든 곡식을 저장고에 넣은 후에 지내는 명절로,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또한, 민족적 유대감을 새롭게 다지고, 공동체의 연대를 더욱 깊게 만드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명절.      초막절에서 드러나는 핵심 감정은 바로 즐거움이며, 그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다지는 의미 있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김영동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9월에는 지구촌 한가족이라는 주제로 다른 문화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 주에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전시를 보고 왔어요. 엘크이빨로 장식한 원피스랑 독수리 깃털 머리 장식, 작은 구슬을 꿰어 장식한 신발도 보고 티피와 여러 집들 모형도 보았어요. 추징사 선생님을 모시고 중국 추석이야기를 듣고 인사말도 배웠어요. 추석에 먹는 월병도 받았어요.

이번 주에는 중남미문화원에 다녀왔어요. 꾸러기들은 종교관의 십자가랑 용 모습 탈, 생명의 나무, 몰라라는 손바느질 작품, 청새치 박제 등을 좋아했어요. 점심에는 멕시코 음식을 먹었어요.

목요일에 불린 쌀을 보고 솔잎을 따어요. 금요일에 각 가정에서 준비해 주신 소를 넣어 송편을 빚었어요. 장미숙 권사님, 노미현 사모님과 식사당번 어머니들께서도 도와주셨어요. 꾸러기들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 모양은 제각각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주변에 계신 공동체 어른들께도 맛보시라고 드렸어요.

지음이와 학교에서 놀다가 다쳤는데 안정이 필요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잘 쉬고 별일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음리와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정승희 >

### 어린이학교

어린이 소식입니다.

아무런 행사나 이벤트가 없었던 드문 일주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추석을 기다리며 할머니댁이나 캠핑을 간다는 말들을 하며 하루하루를 손꼽으며 보내는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같구나 싶어 잠깐 추억을 소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주는 각 부서를 지원하고 활동을 계획 했습니다. 시설관리부, 도

서지기, 미화부, 체육부 이렇게 네 부서에 임원과 학년장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 지원을 해서 한학기 동안 섬김의 봉사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출타 중이시고, 또 사랑 많으신 부모님들께서 추석인사를 해주시기도해서 풍성한 추석을 예감하며 한주를 보냈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 뵙겠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 멋쟁이학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후덥지근한 날씨지만, 멋쟁이들은 여전히 활기칩니다. 특히나 이번 주간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탁구가 대성행이었습니다. 탁구대회를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거나, 스스로 갈고 닦거나, 또는 다른 멋쟁이들에게 뽐내는 함성이 쉬는 시간들마다 굼직하게 울려 퍼집니다.

월요일에는 드디어 5학년이 유럽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모든 선생님의 배웅을 받으며 보무도 당당히 떠났습니다. 잘 도착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앞으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화요일에는 생일파티가 열려서 멋쟁이들이 맛있게 먹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몇 달치를 묶어서 진행하는데, 그만큼 더 재밌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던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목요일에는 공동심화학습 <야구>를 마무리하며 퍼펙트게임이란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임에도 응원하는 목소리를 낼 정도로, 모든 스포츠는 각 사람의 드라마가 심겨있는 것임을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열린 수업 시간에는 <추석 알아보기>를 통하여 추석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배워보고, 퀴즈도 맞춰서 상품도 타고, 윷놀이 팀별대전을 벌이며 왁자지껄 웃으며 윷,모,낙 등을 외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6학년이 수시 접수를 완료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집중하여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고, 원서접수와 서류배송까지 마쳤습니다. 6학년들에게도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 한가위 같은 여유와 넉넉함으로 서로를 대하자

올해는 유난히 많이 더운 날씨입니다. 벌써 추석이 다가왔는데도 더위는 가실 줄 모르고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추석은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봄부터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열심히 수고하여 길러온 온갖 곡식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추석은 우리에게 풍부한 먹거리와 물질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먹을 것과 물질이 풍부해지면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추석에는 여유라는 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우리 회사 직원들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지들과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안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의 특수한 역을 제외하면 보통 다른 역들은 평상시의 근무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게 일을 합니다. 승객들의 이용이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추석을 맞아 직원들을 대하는 승객들의 마음에 넉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추석에 관련된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한가위의 풍요로움이 일년 내내 지속되길 바라는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경쟁과 갈등이 많은 시대에는 한가위 같은 여유로움과 넉넉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공동체 식구들과 세상 사람들이 서로에게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또한 고향을 찾아 먼 길을 왕래하는 공동체 식구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이승호 집사

##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이어진 전도사

찬송 : 301, 200, 429

성경 : 히브리서 13 : 1-8

말씀 : 한결 같으신 주님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이상기온으로 피해를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이 뚜렷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베트남의 대교가 무너지기도 하고, 중국과 일본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수해를 입어 터전이나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대만 선교 사역을 위해>
  - 1) 노효종 선교사님의 사역으로 복음이 많이 퍼지게 되길.
  - 2) 정치, 경제, 자연재해 등이 방해하더라도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서가길
3. 지역사회와 사랑방공동체를 위해
  - 1) 환절기 건강을 위해
  - 2) 유럽공동체탐방을 떠난 5학년 무사 도착. 건강히 잘 다녀오기를.
  - 3) 정태일 목사님 가정이 참된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길.

## <생활공동체 소식 >

가을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한 낮은 폭염으로 바깥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변정리와 발을 관리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추는 이제 거의 수확을 마쳤고 배추와 무를 때 아닌 더위와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공동체를 떠나 고향으로 가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 모처럼 친지들과 풍요로운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